

「진리의 탐구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

글쓴이: 黃美惠

중국문화대학 One Asia 기금회에서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 및 변화'를 주제로 제 14 회 국제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쉬싱칭(徐興慶) 총장이 사토 요지 이사장을 특별 초청하여 '진리의 탐구: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주제로 본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토 요지 이사장은 본교에 장징후 이사장을 만나 동아시아 경제 상황에 관하여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본 강좌 내용은 지구의 75 억 인구의 공통된 근본적 과제에 대한 것으로 민족, 종교, 직업 등의 다원화된 영역에 걸쳐 현장에 100 명이 넘는 교수 및 학생이 모여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쉬 총장은 사토 요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One Asia 기금회는 2003 년 8 월 19 일에 비영리조직(NPO)으로 시작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9 년 12 월 21 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금회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경제, 교육, 문화 및 민간과의 긴밀하고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각국에서 문화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분쟁을 피하고 상호간의 밀접한 이해관계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해내어 공동된 목표인 안정적 경제성장과 평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금회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건을 목표로 힘쓰고 있으며 2011 년부터 아시아 내의 우수한 대학을 지원하고 동시에 '아시아 공동체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 개가 넘는 대학을 지원해왔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 창건을 목표로 관련 학과 개설 및 해당 강의 교수에게 대한 보조금을 지원과 더불어 관련 강의를 청취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입니다. 사토 이사장은 강의 후에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총계 약 23 만 대만달러) 대기 과학과 왕이운, 일문과 씨예찌야화, 일문과 천위슈엔 총 3 명의 학생이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각각 미화 480 달러를 수여 받았으며 우수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은 총 5 명으로 각각 미화 420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반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은 12 명으로 각각 장학금으로 미화 330 달러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상소감은 본 강좌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neasia.pccu.edu.tw/testimonials.php>.

사토 이사장은 '민족과 국적에 불문, 종교에 불문, 정치에 불문' 의 3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여 서로 더 밀접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8 년 4 월, 쉬 총장은 외국어 학부 원장 임기 중에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 및 변화' 라는 강좌를 One Asia 강좌 계획에 신청하였으며 이에 미화 5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교는 국내에서 12 번째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쉬 총장이 사회자를 맡았으며 9 월부터 중국문화대학의 외국어 학부가 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6 개월동안 15 개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동아시아학의 전문학자 및 본교 교수를 초청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연구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깊게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 국가, 역사, 문화 및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학술연구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학술 플랫폼을 창조해내어 공동적인 사고를 가진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One Asia 강의 교육 진흥에 관련하여 본 강좌의 구성원들은 3 회의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습캠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이미 2 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각 캠프의 주제는 '인문 및 사회과학의 대화: 다양한 관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바라보다' 및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 였습니다. 3 번째 학습 캠프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둘러보다' 로 2019 년 1 월 19 일에 본교 샤오펑 기념관 제 1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토 이사장의 이번 강연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IS 전쟁이 이어지면서 인류는 여전히 전쟁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계 영국 작가인 아서 퀴슬러 (Arthur Koestler, 1905~1983)는 일찍이 "인류의 최종적인 고민은 끊임없는 인류 간의 전쟁 및 살육일 것이며 이는 인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며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 (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 도 "이러다간 인류는 머지않아 세계적인 전면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이니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극복해내는 것이 평화로 가는 "중요한 열쇠" 입니다. 이 "열쇠"를 얻지 못한다면 인류가 미래에도 계속 생존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토 이사장은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위기에 관해 군사에서 경제전쟁 및 빈부격차 등의 현대문제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토 이사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3 개의 높은 벽은 '자아와 자신, 기업과 단체, 국가와 민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 벽은 "자아와 자신"으로 우리는 흔히 이 곳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인지, 또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만들어진 강한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아"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포위한 벽을 뛰어 넘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75 억 인구는 평화로운 공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토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들간은 사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나 국가의 작용으로 이러한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미래에는 위의 3 개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후에는 우리의 생존 공간이 국가 및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토 이사장의 강의 주제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로써 본 강의의 목적은 인류의 기본 사명인 '자아(human ego), 사람(eternal absolute human), 생명(eternal absolute life), 실체(the ultimate substance)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기본사명은 75 억인구의 공통적 과제로서 민족, 국적, 종교, 직업을 초월하여 진리에 다가가고 진리를 탐구해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영원하고 완전하며 거부할 수 없으며 보편성 및 타당성이 있는 법칙입니다. 또한 일부 명제는 다른 명제와 모순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진리 이전에 민족, 종교, 정치, 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빈부격차 등의 부정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과 모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과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진리탐구'입니다. 자신의 지식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상상력에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며 또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사토는 종교와 양자역학이 점점 더 진리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토 이사장은 진리의 탐구를 통해 진리에 다가감을 통해 미래의 인류의 자아가 진정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때가 오면 현세는 "인류"의 세계로 더더욱 나아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One Asia 기금회는 미래에 어쩌면 형성될 아시아 공동체가 공동발전의 체제로써 각 민족간의 역사문화의 발전을 유지하고 통합을 형성하여 각자 평화공생하는 세계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황메이웨이 · 일문과 조교수)

※본 강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oneasia.pccu.edu.tw/facultydata.php?page=1>